

2002년과 여성환경연대



박영숙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소장, 여성환경연대 으뜸지기)

말 말들의 사회는 완벽한 모계사회라는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말띠의 해는 여성의 해'라고 하는 한 동물행동학계 교수가 쓴 글을 읽은 적이 있다. 2002년은 말띠의 해이다. 말띠여자들은 팔자가 세다고 해서 금년에는 딸을 낳을까봐 두려워 임신을 피한다고 하는 터여서 이 교수의 글은 눈길을 끌었다. 팔자가 사납다고 하는 말이 여자가 가정의 울타리 밖에서 일을 해야 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라면 임오년은 분명하게 여성들이 가정 밖에서 많은 일을 해야 하는 여성의 해일 수밖에 없다. 2001년도에 여성계가 건인해 낸 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의 실효를 거두기 위한 내실도 다져야 하지만 특히 여성환경인들의 활동이 기대되는 한 해이기 때문이다.

2002년은 환경친화적으로 치루어내야만 하는 세계의 600억명의 축구애호가들이 지켜보는 월드컵 축구경기와 아시아인의 축제인 아시안게임의 두 국제적인 스포츠행사가 있는가 하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행정책임자를 선출해야 하는 두 번의 선거가 있는 해이다. 그런가하면 금년 가을에는 인류의 삶의 터전인 지구생태환경을 바로잡는 일과 한판 씨름을 해야 하는 리우+10이라는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WSSD)>가 열리게 되어 있어서 여성환경인들을 더욱 바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행사들을 평화와 전쟁, 세계화와 반세계화, 문명의 충돌 또는 역사의 종말론 등의 논의에서 9.11테러사건 이후 더욱 극명해지고 있는 정치, 경제, 문화적인 문제인식에 대한 국내외의 양극화 현상이 극심한 가운데 치루어야 하는데 어려움이 따르

고 있다. 강자와 약자의 논리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서 '지구는 하나인데 세계가 하나가 아닌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지난 1월 31일에서 4일까지 뉴욕에서의 세계경제포럼(WEF)과 같은 날 시작되어 하루 더 늦게 끝난 브라질의 포르투알레그레에서의 세계사회포럼(WSF)등이 각각의 회의 구성원과 주제 내용, 지향점 그리고 그 결과물이 다른 데서도 찾아볼 수 있다. 현재 여성환경연대가 회의참가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지구생태환경의 지속가능한 발전문제를 다루게 되는 리우+10에서는 이 두 포럼의 모든 것이 혼존하는 회의가 되는데서 기대가 되는 한편 우려되는 바가 있다.

2002년은 여성환경연대가 엄청난 일을 해내야 하는 힘겨운 한 해가 된다. 그러나 동시에 국내외적으로 크게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하기에 따라서는 특히 국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장도 마련되어 있다. 여성환경연대가 앞장서서 종래의 국제회의에서의 우리의 주변적인 역할을 주류화로의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전환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

남은 문제는 금번 기회에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면밀하게 기획 집행해야 하는 것이다. 전국에 흩어져 활동하고 있는 여성환경인들이 역할분담을 잘해야 하는 것이 우선 과제이다. 어느 과제 하나도 놓쳐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2002년은 여성환경연대가 '일상'에서 '비상'으로의 업무전환이 필요한 한 해이다. ▼